

“ 변화는 좋으나 변질은 안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이방의 빛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 선교의 고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미래의 시민상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행진을 더욱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은 한국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일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캐냄으로 자기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공장을 세웠는데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환경오염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사람들이 호흡조차 힘들게 되었다면 공장 건설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보수와 변해야 산다는 진보가 팽팽하게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층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은 충돌 개념보다는 상호 보충개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다함께 헌법을 보수해야 한다. 그 헌법의 표준하에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는 보수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아래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입으로는 헌법을 인정하나 실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강단에서 읽고 성경이야기는 설교라는 틀 속에서 외치고 있으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교세 확장에 더 치중을 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와 젊은이를 위함이라는 명분만으로 변질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경에로 변화되어야 한다.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뜻대인 성경만을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사관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왕되신 주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국의 달 6월의 네번째 주일예배를 드리며, 오후 찬양예배는 흥해작전 승전감 사예배로 드립니다.

한편 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음세대들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매달 첫 토요일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하여 다음주 7월2일(토) 새벽 6시 첫 토요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나와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되고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각 가정의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 성찬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넘어 대면예배에 더욱 힘쓰며,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일 주일을 경건하게 준비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62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갈릴리에서 땅끝으로 ”

■ 마태복음 28:16-20
 마태복음에서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흠여지는 디아스포라이기도 합니다. 박해 때문에 흠여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다시 교회가 사람들을 보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어 감당하면서 초기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삼고 세례를 베풀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갈릴리에서 출발한 제자들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부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나이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1. 갈릴리로 가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던 이유가 혹자는 제자들을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부르신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혹자는 갈릴리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자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갈릴리는 변방지대여서 외부의 잦은 침공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귀족들은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부정하다며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처입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려 부르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3의 해석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변방지대였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하여 먼 나라로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고가는 사람들을 통해 인근의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갈릴리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선교의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세계를 향한 복음전파를 우리의 비전으로 주십니다. 눈을 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땅끝을 보아야 합니다.

2.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는 제자들이 받기에는 너무 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부족해 보이는 그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으로 부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던 사역이 오늘의 교회에 위임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예는 전할 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땅 끝의 이웃에게 이르도록 복음 전파에 전력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망설여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은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족은 우리를 현실 문제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망설이며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수 1:5,6)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낮아지는 능력이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이며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원점에 다시 서서 주님은 땅끝의 먼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결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를 출발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미 4: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0(나라사랑)...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60(19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8:16-2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갈릴리에서 땅끝으로”...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59(40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근 목사, 설교: 김태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0:1-3 인 도 자
 찬 송 242(233) 다 함 께
 기 도 박준희 집사
 찬 송 347(382) 다 함 께
 성 경 삼하 7:1-9 인 도 자
 흥해작전 승전보고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 설 교 자
 * 찬 송 310(41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임춘자 권사 II부: 송미정 권사
 성 경 행 26:24-3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선지자를 믿습니까?”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해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모임

- 디자인팀 월례회 / 26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 권사 월례회 / 26일(주일) 3부 예배 후 101호
- 뵤뵤 월례회 / 28일(화) 오전 11시 도곡vips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이만주 심방 일정
1-10, 4-8, 5-10, 6-3 다락방
- 맥추감사절 /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합니다.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경아	1-5	루디아	본인	최현준1	2-3	빌립	본인
김명준4	1-5	중등부	본인	최진범	3-4	바울	본인
김민서	1-5	초등부	본인	최연재1	3-4	고등부	본인
장정인	2-3	도르가	본인	최연수	3-4	중등부	본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72명	496명	1,968명	383명	4,620명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희생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